

말씀의 샘

만이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38~44절>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를 잘하는 어느 나라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파종을 사서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싹이 나지를 앓았습니다. 알고 보니 씨가 가짜였습니다. 또 알게 된 것은 함께 샀던 제초제와 비료 또한 다 가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한 젊은 농부는 농약 한 병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농약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비싼 명품의 이미테이션은 워낙 역사와 전통과 노하우가 첨단을 달리고 있어서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먹거리까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달걀, 가짜 두부, 가짜 새우, 가짜 만두, 가짜 오리알, 가짜 삭스핀... 갈수록 믿을 수 없는 저신뢰사회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참 전도와 선교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믿어야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믿음의 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고후 5:7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감입니다. 오감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은 쌓여져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좋은 교육은 오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 지식의 습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며, 좋은 학술은 모두가 오감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될 때 영향력이 있는 학술이 되지만 영적세계는 다릅니다. 오감으로 접근하고 배워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접근하고 배워가는 세계입니다. 믿음은 영적세계를 배워가고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오감이 발달할수록 이 세상을 더 많이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듯이, 믿음이 발전하고 자랄수록 영적세계를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많은 도마'는 믿어야 할 신앙 문제를 만져보아 한다고 오감으로 접근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방식의 접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잘못된 접근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이면 영광을 보리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죽지 않았고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눈으로 귀로 확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8:51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믿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하시며, 계속 믿도록 경험들을 주시는 반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빼앗겨 버립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눈물 쓴 소경은 유대교에서 출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9: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믿으려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육신의 눈은 이미 떠졌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야 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번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밟고 서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삶에 아무런 싸인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기도했던 문제는 감감 무소식이고, 자꾸 실망이 되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먼저 믿으십시오.

둘째, 믿는 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시편 103: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와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권능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싸인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부터 천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홍해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갑작스럽게 애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진퇴양난이 발생한 겁니다.

출애굽기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무런 싸인도 없고 아무런 지시도 없는 상황에 모세 먼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믿고자 하며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때부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며 그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2016년 10월 23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0. 30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창세기 37:6-9, 창세기 41:14-16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 중심의 신앙"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